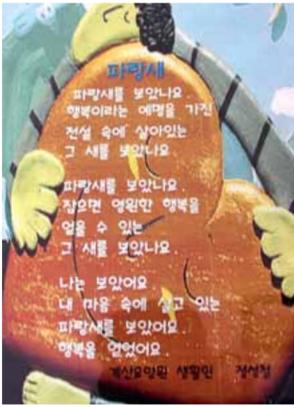


# 장애 이겨내고 꿈 키우는 '자활 보금자리'



정성철씨가 쓴 시 '파랑새'

나주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목욕을 하고, 재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 나주지역 장애인들의 사랑방인 (사)계산원(대표 김계운)이 설립 25주년을 맞았다.

◇장애인들의 쉼터=계산원은 지난 1989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뒤 장애인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주시 삼영동 산 44지번 일대 1만1506㎡의 부지에 조성된 계산원에는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인 나주 계산요양원, 정신지체 생활시설인 성산원,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시설인 수산원 등이 자리잡고 있다.

또 3곳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계산원 보호작업장,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들어서 있다.

인근에는 나주시 노인전문 요양원과 전남 장애인복지관 등이 위치해 있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작은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계산원 목욕탕은 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장애인까지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에 개관한 이 목욕탕은 곳을 이용한 나주지역 장애인은 2012년 기준 4만5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나주시청 공무원과 지역 자원봉사

## 나주 장애인들의 사랑방 '계산원' 설립 25주년



고세명(왼쪽) 원장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우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전용목욕탕서 화합 싹트고 작업장에선 희망 자라고 일 통해 사회 참여·자립 기반 시인·마라토너 꿈도 '쑥쑥'

자들이 목욕도우미로 나서고 있어 목욕탕이 주민 화합의 공간이 되고 있다.

계산원은 또 지역사회와 교류를 늘리기 위해 주차장, 운동장, 물리치료실, 강당, 의료실, 보호작업장, 목욕탕 등 각종 장비와 시설을 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다.

◇일과 사랑이 꽃피는 곳=계산원 보호작업장에서는 42명의 장애인들이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이 작업장의 설립목적은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생활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을 위한 직업지도 및 일하는 기쁨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지 9049㎡에 건물면적 863㎡에 세워진 계산원 보호작업장에는 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인근의 한국 3M나주공장 등에

서 생산하는 제품을 조립하거나 포장을 맡아 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일을 하며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작업장에는 현재 두 쌍의 부부가 근무하고 있다. 작업장장인 박성왕(47·남미면 29) 부부와 서경구(44·김옥미(40) 부부는 이곳에서 만나 사랑을 꽃피웠다.

박성왕씨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는 계산원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작업장에 근무했다. 박씨 부부는 이곳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사랑이 싹터 결혼에 골인한 2년차 신혼부부다.

이 작업장 고세명 원장은 "시설 장애우들이 처음 작업장에 출근할 때는 일을 대충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한다"면서 "일을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작업장 규모의 한계가 있어 일정 인원 이상은 받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시인·마라토너의 꿈 '무력무력'=계산원에는 시인과 마라토너가 살고 있다.

정성철(41)씨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동료 장애인들에게 '삶'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해주는 시인이다.

그는 1992년 계산원에 입소했다. 팔·다리를 쓸 수 없는 그는 지난 1994년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 시를 쓸 때는 다른 사람이 글씨를 대신 써줘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수 스틱마우스를 활용해 컴퓨터에 직접 시를 쓴다. 그는 요즘 자립을 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다.

마라톤에 푹 빠진 민상아(23)씨는 지난 2011년 그리스 아테네 하계 스포셜올림픽 육상 1500m에 출전해 동메달을 거머쥐는 등 이미 유명 인사가 됐다.

16년 전 나주 버스터미널에서 발견된 상아는 지적장애 3급으로 이름도 나이도 몰라 그냥 '미상아'로 불리었다. 이후 호적을 올리면서 이름을 아예 '민상아'로 지었고, 지과 검정 등을 통해 출생연도 1992년으로, 생일은 입소한 날로 정했다.

민씨는 이곳에서 마라톤을 시작했다. 운동을 하면서 그는 조금씩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의 주종목은 트랙 1500m 중장거리다. 전국체전에서 성화 봉송주자로 나섰다. 상아는 지난 2009년 전북에서 열린 스포셜올림픽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서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2011년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스포셜올림픽에 참가했다. 비록 가족을 찾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 선수들과 당당하게 겨뤘던 메달을 땀다.

민씨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보면 행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며 "열심히 돈을 모아 자립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체육교사가 되고 싶다는 민씨는 오늘도 꿈을 향해 계산원 일대를 달리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bson@kwangju.co.kr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불편 해소 나서

### 나주시, 4개 기관 애로 청취

나주시가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팔을 걷었다.

나주시는 지난 11일 우정사업 정보센터와 농식품 공무원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립 전파연구원 등 4개 기관 임직원들을 초청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임직원들은 애로사항으로 병원시설과 교육여건 조성,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도로혼잡, 문화서비스 부족 등을 털어놓았다.

특히 크고 작은 회의와 교육생 등 기관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데 대중교통 배

차간격이 너무 멀고, 운행시간이 편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통불편 사항을 집중 토론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제일 먼저 이전을 완료한 우정사업 정보센터를 비롯해 최근이 이전한 기관 임직원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잘 파악하고 있다"며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도시가 완성돼 가는 과정을 잘 살피서 임직원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bson@

## 우정사업정보센터 지역밀착 사랑나눔 활발

### 장학사업·농촌 일손돕기 펼쳐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새로운 동지들을 우정사업 정보센터가 민·관협력 서비스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정사업 정보센터는 지난해 3월 이전한 직후부터 지역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과 농촌일손 돕기 등을 펼치고 있다. 직원들은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은 1284만원을 3차례에 걸쳐 학업이 어려운 불우청소년 16명에게 전달했다.

또한 직원들은 혁신도시와 인접한 산

포면, 금천면 5개 농촌마을과 '1과(課)·1촌(村)' 자매결연을 맺어 농촌일손 돕기, 농촌일 배우기에 나섰다.

이 밖에도 보일월 교체(18 가구)와 도배장판(13 가구), 밀반찬 지원(10 가구) 등 지역밀착형 사랑나눔 동행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 전기관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쳐서 나주 복지자원에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나주경찰 '무사고 건강시계 1400일' 기념행사

나주경찰이 지난 2010년 10월 이후 무사고를 달성했다.

나주경찰서(서장 이우진)는 지난 11일 직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고 건강시계' 1400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청렴한 조직을 다짐하는 자정 캠페인을 비롯해 으뜸 청렴동아리 인증패 전달, 유공경찰관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건강시계는 경찰관서에 소속 직원의

유증운전 및 금품수수, 피의자 도주 등 주요 의무위반행위 발생시 '0'으로 설정해 일수를 산정한다.

이우진 서장은 "건강시계 1400일 달성은 나주경찰 모두의 정성과 인내로 얻어진 결과"라며 "건강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념과 열정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계산원'에서 꿈을 키우는 사람들



스틱마우스를 이용해 시를 쓰는 정성철씨



마라톤에 푹 빠진 민상아씨



완벽한 가정을 이룬 서경구·김옥미 부부



결혼 2년차인 박성왕·남미연 부부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민흥	267-4748
백은	673-4698
동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원철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